

# GIST, 해남군과 AI과학인재 양성 및 교류협력 MOU

## - 인공지능,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및 지역특화산업 분야 -

- 첨단 산업 육성, 첨단 과학기술 활용, 연계사업 발굴, 발전특구 협력, 인재 양성 등 5개 분야 협력하기로
- "첨단 과학기술 분야 지역인재 양성과 AI기술 활용한 지역의 미래 신산업(문화기술, 체험전시 등) 육성 기반 마련 기대"



▲ GIST와 해남군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지역인재 양성 및 AI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(왼쪽부터) 해남군 명현관 군수와 GIST 임기철 총장이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전라남도 해남군(군수 명현관)과 **첨단 과학기술 분야 지역인재 양성 및 AI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업무협약 (MoU)을 체결**했다고 밝혔다.

협약식은 7월 2일(화) GIST 임기철 총장, 정용화 대외부총장, 김경중 한국문화기술 연구소장(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), 김홍국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와 해남군 명현관 군수, 김미숙 기획실장, 이재영 관광실장 등 **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 청 상황실**에서 진행됐다.

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▲**첨단 산업 육성**: 지역인재 교육 및 육성 등을 위한 공동협력 ▲**첨단 과학기술 활용**: 인공지능(AI), 메타버스, 자율주행 분야 등 교육 및 기술 협력 및 공동연구,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▲**연계사업 발굴**: 정부 4차산업 관련 연계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협력 ▲**발전특구 협력**: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한 공동협력 ▲**인재 양성**: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(GTMBA) 교육과정 개설 협력 및 장학생 선발 등이 포함됐다.

이날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김홍국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'AI 음성인식 번역 기술'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, 기존 틀에서 벗어난 해남군만의 특색있는 체험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, GIST의 첨단 AI기술을 접목한 지역의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.



▲ GIST와 해남군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지역인재 양성 및 AI기술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.

임기철 GIST 총장은 "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**GIST는 지역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**"면서 "해남군의 소중한 자원과 **GIST의 AI혁명을 연결 지어 새롭게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통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**"고 말했다.

명현관 해남군수는 "해남군과 GIST의 **실질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창출하자는 말씀에 공감한다**"며 "GIST와 해남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**해남군의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자원에 AI기술로 변화를 시도하여 대한민국 농어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**"고 말했다.